

한문독해첩경 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	송재소 - 성균관대 명예교수, 본회 동양고전번역연구소 소장
자문	위원장 정우상 - 서울교대 명예교수 위원 오규근 - 원로 한학자 신용호 - 공주대 명예교수 김경수 - 중앙대 명예교수 안재철 - 단국대 명예교수 심경호 - 고려대 교수, 본회 동양고전번역편집위원회 위원 김 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본회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장
연구집필	위원장 이충구 - 성신여대 겸임교수, 본회 교무위원장 이상진 -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전임위원장) 위원 이화춘 - 본회 고전교육연구실 실장 원주용 - 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지곤 - 본회 상임연구위원
교육연구	위원 원주용 - 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성민 - 성균관대 연구교수
검토	위원 남현희 - 본회 고전번역연구실 실장 박상수 - 본회 연구위원 박승주 - 본회 상임연구위원 안성수 - 본회 고전정보화연구실 실장 이상하 - 고전번역교육원 교수 이라나 - 본회 연구위원 전병수 - 본회 책임연구원 최상근 - 승정원일기연구소 강사, 방배중학교 교사 허 철 - 단국대 연구교수

동양고전번역편집위원회 | 송재소 김경호 심경호 전호근 최석기 하원수 허경진

정보화위원회 | 김 현 백한기 양창진 옥철영 이동철 최희수

교무위원회 | 이충구 권경상 김병애 원주용 이영호 이라나

사이버교육위원회 | 강명희 남수극 방인태 오형민 이대범 허 철

중용 中庸

天命 率性 修道 戒愼恐懼 # A之謂B

A之謂B : A를 B라고 말하다

375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니라}

A乎B : B에 A하다

376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니 可離^면 非道也^라 是故^로
君子^는 戒愼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니라}

• 품절 品節 : 사람과 사물이 행해야 할 것을 따라서 등급에 맞게 조절하여 법으로 만드는 것. 예악 禮樂·형정 刑政 등이 여기에 해당함.

375 하늘이 명한 것을 성 性이라 이르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 道라 이르고, 도를 등급 지어 나눈 品節 것을 교 教라 이른다.

集註 命은 猶令也요 性은 卽理也라 率은 循也요 道는 猶路也라 修는 品節之也라 : '命'은 '令(명령)'과 같고 '性'은 바로 '理'이다. '率'은 따름이고 '道'는 '路(길)'와 같다. '修'는 품절 品節 함이다.

• 수유 須臾 : 잠시. 잠깐 동안.

376 도 道라는 것은 잠시 須臾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 君子는 그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계하고 삼가며 戒愼, 그 듣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한다 恐懼.

- A也者B는 주어 강조한 패턴이다. (解 ⇨ 83)

集註 道者는 日用事物當行之理라 : '道'는 일상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남과 교제하는 때 日用事物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이치이다.

• 일용사물 日用事物 : 일용 日用은 일상생활, 사 事는 일을 처리함, 물 物은 남과 교제하는 때를 말함.



CV18076

庸 땃땃할 용 謂 이를 위 率 따를 솔

2000년 한문 장벽의 도전

광복光復 이후 줄곧 문제가 제기된 한자漢字와 한글의 어문정책語文政策에 관하여 2005년 정부가 한글전용을 지향하는 '국어기본법國語基本法'을 입법하자, 주요 어문단체語文團體와 관계 인사들이 격분하여 정부에 '국어기본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어문정책은 각종 도서나 문서 등에 대한 대중의 독해력讀解力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문고전을 독해해야 하는 한국학韓國學 또는 동양학東洋學 전공자에게는 '불통不通'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서 공용문자共用文字인 한자를 2000년 이상 써오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해오다가,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불과 100여 년이 못 되어 역사와 문화의 단절斷切을 겪고 있다. 이에 본회는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문화한국을 만들기 위하여 선진문화한국 VISION 2030²⁰⁵⁰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한자 문제는 개화기 이후 서양西洋의 신교육新教育이 범람하여 한문독해의 필요성이 적어지자, 전통적 한학수학漢學修學이 거의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유치원부터 박사학위 과정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영어英語의 교육과 시험을 치르는 현상이 마치 조선시대 과거科擧를 준비하던 한학수학漢學修學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한문이든 영어든 모두 문리터득文理據得과 독해에 능통能通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경비를 요要하기에, 우리 청춘青春을 거의 바쳐야 하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글과 사회에서는 영어보다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 우리 일상이 한자문화로 둘러싸여 있어 한문을 본격적으로 연수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다.

한문독해력은 21세기 동북아東北亞 시대에, 특히 동양학이나 한국학 전공자나 지식인知識人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한자는 동북아문화권東北亞文化圈의 공용共用문자로서 한韓·중中·일日이 800자를 선정하여 상식과 교양으로 제정 권고한 바도 있다.

돌아보면 1974년 한문고전 번역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 국역연수원國譯研修院을 정부에서 설립하였을 때, 한문 문리터득을 위한 교육을 위해 여러 한학자漢學者와 동양학東洋學 교수 등이 모여서 토의한 바 있다. 이때 몇몇 분이 전통적인 한문학습에 서양 이론을 융합하자는 의견을 주셨다. 즉, 우리의 한학漢學 독해법讀解法은 정서적情緒的·감성적感性的이고, 서양의 언어言語 독해법은 분석적分析的·이성적理性的이라는 것이다.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이 둘을 융합하는 연구가 필요했다.

목 차

2000년 한문 장벽의 도전 3
 《사서독해첩경》을 집필하며 5
 일러두기 및 연수방법 7

I. 대학 大學

대학 大學 16

II. 논어 論語

1. 학이 <small>學而</small> 30	11. 선진 <small>先進</small> 87
2. 위정 <small>爲政</small> 39	12. 안연 <small>顏淵</small> 91
3. 팔일 <small>八佾</small> 45	13. 자로 <small>子路</small> 95
4. 이인 <small>里仁</small> 49	14. 헌문 <small>憲問</small> 97
5. 공야장 <small>公冶長</small> 56	15. 위령공 <small>衛靈公</small> 100
6. 옹야 <small>雍也</small> 63	16. 계씨 <small>季氏</small> 104
7. 술이 <small>述而</small> 69	17. 양화 <small>陽貨</small> 108
8. 태백 <small>泰伯</small> 76	18. 미자 <small>微子</small> 113
9. 자한 <small>子罕</small> 80	19. 자장 <small>子張</small> 116
10. 향당 <small>鄉黨</small> 83	20. 요왈 <small>堯曰</small> 118

III. 맹자 孟子

1. 양혜왕 <small>梁惠王</small> 상 124	7. 이루 <small>離婁</small> 상 185
2. 양혜왕 <small>梁惠王</small> 하 149	8. 이루 <small>離婁</small> 하 193
3. 공손추 <small>公孫丑</small> 상 157	9. 만장 <small>萬章</small> 상 198
4. 공손추 <small>公孫丑</small> 하 169	10. 만장 <small>萬章</small> 하 201
5. 등문공 <small>滕文公</small> 상 176	11. 고자 <small>告子</small> 상 203
6. 등문공 <small>滕文公</small> 하 179	12. 고자 <small>告子</small> 하 208

13. 진심_{盡心} 상 21014. 진심_{盡心} 하 213IV. 중용_{中庸}중용_{中庸} 220

부 록

《기본패턴》해설 색인	236
편명 가나다 색인	238
패턴 색인	239
한자와 현토	250
구결표	254
공자 연보	255
맹자 연보	257
공자 제자 일람	258
참고 문헌	259

패턴 목차

※ 《기본패턴》에 수록된 패턴 제외

접속의 패턴

## 與 _{AB} : A와 함께 B하다	58
## A然後 _B : A한 뒤에 B하다	66
## A也 B也 C也 ... : A와 B와 C와	230

‘之’의 패턴

## A之 _{B者} : A 중에 B한 사람/것 ; B한 A ; B하게 A하다	96
---	----

14 사서독해첩경

‘以爲’의 패턴

以(爲)A而B : A라고 하여/여겨서 B하다 163

‘所/有~者’의 패턴

所A者 : A하는 것 77

所謂A者 : 이른바 A라는 것(사람)은 24

有A者 : A한 것/사람이 있다 101

‘所以’의 패턴

有以A 無以A 亡以A : A할 것/수단이 있/없다 26

시간/장소의 패턴

當A之時 A之時 : A 때를 당하여 ; A했을 때 161

及其A也 : A에 미쳐서는 ; A하게 되면 173

去AB 違AB 近AB : A와 거리가 B하다 216

도치의 패턴

A之謂B : A를 B라고 이르다 22

부정의 패턴

無A(而)不B : 어떤 A이건/A마다 B하지 않음이 없다 205

반어의 패턴

不亦A乎 : 또한 A하지 않은가 30

부사의 패턴

A如 A然 A乎 A也 A而 : A하게 ; A한 듯 ; A한 상태로 83

청유의 패턴

請A 願A : (청컨대/바라건대) A하소서 ; A를 청하다/바라다 ; A해 보겠다 ; A해봐도 될까요? 92

대학大學

三綱領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 #A之B

A之B:A의 B
 在A:A에 있다
 A於B:B에서 A하다

1 大學之道는 在明明德^신하며 在親民^신하며 在止於至善^신이니라

※ 之의 쓰임 : ① 가다 ② 그것, 이것 ③ ~의, ~한(수식/한정)
 ④ ~이/가(주어) ⑤ ~을/를(목적어)

之는 한문漢文에서 많이 나오는 글자이므로 쓰임에 유의하자.

- 志者는 心之所之之謂라
이 간 를
 지志는 마음이 간 바(지향한 것)를 이른다.
- 教之之序는 當依小學이니라
그를 는
 그를 가르치는 순서는 마땅히 《소학小學》을 따라야 한다.

- 강령三綱: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 삼강령三綱領:《대학大學》의 세 강령인明明德明明德·신민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을 이르는 말.
- 명덕明德:밝은 덕德. 훌륭한 덕.
- 지선至善:明明德明明德·신민親民의 지선처至善處. 유가儒家에서, 사람이 수양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1 대학의 도道는 밝은 덕[明德]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親民]에 있으며 지극한 선[至善]에 머무름에 있다.

- 大學之道는 在明明德^{4 3 1 2}하며 在親民^{5 4 3 1 2}하며 在止於至善^{5 4 3 1 2}이니라

集註 大學者는 大人之學也라 : '大學'은 대인大人의 학문이다.

- 明은 明之也라 明德者는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하여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 : '明'은 밝힘이다.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 온갖 이치[衆理]를 갖추고 모든 일[萬事]에 응하는 것이다.
- 新者는 革其舊之謂也라 止者는 必至於是而不遷之意요 至善은 則事理當然之極也라 : '新'은 옛 것을 고침을 이른다. '止'는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 뜻이요, '至善'은 사리의 당연함이 지극한 곳이다.



CV17701

親(≡新) 새로울 신 止 머무름 지 昧 어두울 때 遷 옮길 천

1. 학이^열學而

時習 # 不亦A乎

不亦A乎 : 또한 A하지 않겠는가

17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不亦A乎 : 또한 A하지 않은가

반어형 문장이다. 의문문과는 문장의 구조가 같아 앞뒤 문맥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문장 18, 19도 이에 해당하며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다.

※ 의문문과 반어문의 차이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형식이다.

반어문은 의문문과 문장의 구조가 거의 같은데 '대답이 필요한 경우'는 의문문이며, '대답이 필요 없이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확인 강조하는 경우'는 '반어문'인데, 부정의문문은 대부분 반어문에 속한다.(例 96 등)

• 공자孔子: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사상가. 유가 사상의 창시자.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 시습時習: 배운 것을 늘 되풀이하여 익힘. 또는 제때에 익힘.

17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時習],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集註 學之爲言은 效也라 : 배운다는 말은 본받음이다.

- 習은 鳥數飛也니 學之不已를 如鳥數飛也라 : '習'은 새가 자주 날갯짓하는 것이니, 배움을 그치지 않기를 마치 새 <새끼가> 자주 날갯짓하는 것같이 함이다.
- 時習者는 無時而不習이라 : '時習'이란 어느 때고 익히지 않음이 없음이다.



CV17717

說(≒悅) 기쁠 열 數 자주 익

1. 양혜왕梁惠王 상

不遠千里 利 仁義 #何必A

227 孟子見梁惠王_{하신대}

有以A:A할 것이 있다

228 王曰 叟 不遠千里而來_{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_{잇가}

何必A:어찌 반드시 A하는가
A而已矣:A일 뿐이다

229 孟子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_{니이다}

• 혜왕惠王: 전국시대 위魏나라 왕. 무후武侯의 아들.

227 맹자孟子가 양 혜왕梁惠王을 만났는데,

- 진晉이 위魏·조趙·한韓의 삼진三晉으로 분리되었고, 뒤에 위가 대량大梁으로 천도遷都하였으므로 '양梁 땅의 혜왕'이라 하여 '양 혜왕'이라 불렀다.

228 왕이 말하였다. “노인장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 有以A는 有所以와 같으며, 所以의 의미에서 '방법'으로 풀이한다.(解 14)

229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은 하필何必 이利를 말하십니까. 또한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



CV17927

梁 들보 량; 나라 이름 叟 늙은이 수

大夫 士庶人 萬乘 千乘 百乘 萬取千焉 千取百焉 後義先利

230 王曰 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 何以利吾身^{고하여} 上下交征利^면 而國이 危
 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요 千乘
 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
 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여는}
 不廢^{이내이다}

何以A: 어떻게 A하겠는가
 A而B: A하면 B하다
 苟A: 진실로/만약 A하면
 不A 不B: A하지 않으면 B하
 지 못한다

#47 何以A 何爲A 何故A 何由A : 무엇으로써/어떻게 A하는가? 어찌
 하여/무슨 까닭으로 A하는가?

何が 以, 爲, 故, 由와 호응하여 '도구, 행위, 까닭' 등을 묻는 패턴이다.

230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士와 서인庶人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
 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利를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
 워질 것입니다.

集註 仁者는 心之德이요 愛之理며 義者는 心之制요 事之宜也라 : '仁'이란 마
 음의 덕德이요 사랑의 원리이며, '義'란 마음의 제재요 일의 마땅함이다.

만승萬乘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소유
 한> 공경公卿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
 승百乘을 소유한 대부大夫의 집안이니, 만승에서 천승을 취하고 천승에서 백
 승을 취함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義를 중하게 여기지[爲] 않고 이利를
 우선시한다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 '萬取千焉 千取百焉'의 焉은 於此이며, '取千於萬 取百於千'의 도치형이다.
- 不爲不多의 爲는 서술어 '~이다'이며, '不爲 不多'로 풀이된다.
아니다 적은 것

- 대부大夫: 벼슬 이름. 주대周代에 경卿·대부大夫·사士의 세 계급이 있었으며 각 계급은 또 상·중·하의 등급이 있었다. 당송唐宋시대까지 쓰임.
- 사서인士庶人: 관리와 서민. 또는 선비와 백성.
- 만승萬乘: 천자를 이르는 말. 천자는 천리의 땅에 병거兵車 10,000냥輛을 낼 수 있다 하여 이르는 말.
- 천승千乘: 전국시대 제후국諸侯國 중에서 큰 나라.
- 백승百乘之家: 100냥의 병거兵車를 낼 만한 채지采地를 가진 경대부卿大夫.

征 취할 정 弑 윗사람 죽일 시 焉 어조사 언 苟 진실로 구 廢 포식할 염